나의 개발 이야기

일시 : 2019년 04월 27일(토) 오후 02:00~오후 05:30

장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51 (<http://naver.me/GIsQje5t>)

주제 : 개발을 어떻게 배워 나가는지, 개발자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

발표 내용

1. **새내기 개발자는 어떻게 직군과 회사를 정하고 성장했을까 ?**
   1. (고석진 - 트리플)
   2. 새내기 개발자로써 개발을 시작하며 어떻게 분야를 선택했고, 어떤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했으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 **Infra Engineer에서 Frontend Engineer가 되기까지**
   1. (노경모 - ODK Media)
   2. Infra Engineer에서 Frontend Engineer가 되기까지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기술 공부 외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들(영어, GlassDoor, Indeed, LinkedIn, 국문 및 영문 이력서, 독서, 블로그, 커뮤니티, 스터디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3. **나의 공부와 수집과 목표**
   1. (노현석 - Naver)
   2.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목표를 잡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는지 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저처럼 하지않길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도 경험을 공유합니다.
4. **질문덕후 생존기**
   1. (송요창 - 야놀자)
   2. 여기 모르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맨몸으로 IT업계에 들어온 야매 개발자의 생존기를 시작합니다.
5. **늦깎이 개발자, 실전 프로젝트로 성장하다.**
   1. (이승민 - 레이니스트 & GDE Android Korea)
   2. 군대를 전역하고 전과하면서 23살 늦은 나이에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자바의 Class도 모른채 전교생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근본없는 개발자로 시작하여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어느새 8년이 지난 저의 개발 시작기를 들려드립니다.
6. **아직도 나는 개발자가 맞는가?**
   1. (이찬희 - 레이니스트)
   2. 개발자가 되기까지 여러가지 고민들,
   3. 그리고 개발자가 되서도 느끼는 여러 고민과 해소 경험들
7. **만드는게 좋아서 시작한 개발**
   1. (정현경 - OGQ)
   2. 만들기를 좋아했던 일반 사람이 개발을 접하고 배우고 직업으로 선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8. **개발자로서 시야 넓히기 (aka. 슬럼프 극복기)**
   1. (조은 - Naver)
   2. 제가 처음 개발을 시작했을 때, 제가 선택한 커리어는 이미 죽어가는 시장이었고, 이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었지만 시장 전체가 죽어가는 와중에는 의미가 크지 않았습니다.
   3. 이런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슬럼프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 지에 대해 다룹니다
9. **개발자 커리어를 위한 소프트 스킬**
   1. (최용호 - 넥슨 코리아)
   2. 개발자로서 커리어 관리와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스타트업을 거쳐 넥슨 코리아에 오기까지의 경험을 살려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최 : For.D

평소에 정말 생각과 고민이 많았던 주제여서 기대가 된다.

Session 1 : presentation

# 새내기 개발자는 어떻게 직군과 회사를 정하고 성장했을까 ?

* 1. 트리플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중 2년차
  2. 돈을 벌고 싶은데 뭘 하고싶은지 모르겠어요..
     1. 어떻게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2. 치킨vs떡볶이vs피자
     3. **경험을 통해 선택을 했다!**
  3. 어떻게 경험을 할까
     1.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해본다.’
     2. 성향
        1. 성격이 급하고 쉽게 질리는 성격이라, 프론트의 빠른 변화? 가 좋았다?
        2.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과 스터디를 한다. 흥미와 배경지식을 키우자
     3. 업무 속에서 찾는다.
        1. 업무 속에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
  4. 현실
     1. 갖고 있는것이 없더라..
     2.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1. 1일 1커밋ㅋㅋㅋ
        2. 개발 블로그
           1. 나의 활동
           2. 나의 계획 등등
        3. 커뮤니티
           1. 스택오버플로우, 페이스북, 슬랙…
        4. 회사
           1. 기준과 가중치 등등

배울곳이 많은 곳

사수가 있는 곳

연봉은 최저시급 이상만..

집에서 1시간 반 이내가 마지노선이다..

야근은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

* 1. 쉬어갈 수 있는 수단을 꼭 찾아라

# Infra Engineer에서 Frontend Engineer가 되기까지

* 1. ODK Media
  2.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론트엔드)
  3. SK infra
     1. 고통스러운 경험
     2. 정말 하고싶었던 소프트웨어를 못함
     3. 이직
  4. 왜 프론트 엔드?
     1. 익숙한 환경
     2. 심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
     3. 유비쿼터스 플랫폼
     4. 변화무쌍한 것
     5.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만들고 싶다.
  5. 15개월 간 퇴근후 조금씩 공부함
     1. html, css, js es6 ~~~~
  6. 느낀 문제점
     1. 알아야 하는 것이 너무 많다
     2. 이들의 중요성?도 잘 모르겠다
  7. 좋은 방법
     1. 해외로 나가고 싶은데..
     2. 북미 취업 준비
        1. Indeed
        2. Glassdoor
        3. Linkedin
     3.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아주 많이 보더라
     4. 세계적인 테크 회사들이 어떠한 엔지니어를 원하는 지 알게 되었다.
  8. 발견
     1. 영어가 너무 중요하다
        1. stack overflow, medium, quora~~
        2. udemy ~~
        3.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많아짐
     2. 독서는 단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1. 편향되지 않은 독서의 양이 곧 건강한 배경지식
        2. 사고과정이 병행되는 독서는 사고의 틀을 유연하게
        3. 자신의 메타인지 영역도 학습 및 성장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4. 이를 커리어를 개발시키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5.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독서를 활용해야 한다
     3. GDG, NOMAD CODERS
        1.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다
        2. 검색으로는 할 수 없는 ~
  9. 블로그
     1. 생각의 궤적을 남길 수 있다
     2. 글쓰기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 글을 쓰려면 생각을 정리할 수 밖에 없다
        2. 글을 쓰면서도 생각이 정리된다
     3.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4. 이력서를 쓰는데도 도움이 된다

# 나의 공부와 수집과 목표

* 1. Naver 재직
  2.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3. 발표자 : 시간이 많이 남음
  4. 무조건 자료를 많이 모은다.
  5. 재료 -> 데이터 -> 정보
     1. 특히 재료 -> 데이터 과정을 반복 학습으로 정보 취득
  6. 삽질/실패로 경험을 쌓기
  7. 찾기/보관에 포커스
  8. -> 회사를 다니다가 일이 많아짐 -> 잉여 시간이 없음
  9. 새로운 도전
     1. 발표, 이직, 이상한 모임, GDG
  10. 읽기 번역으로 성장
      1. 타인의 지식을 내 창고에 담기
  11. 공부.. 공부.. 공부..
      1. 출퇴근 시간, 퇴근 후, 시간이 남을 때 마다, 화장실에서도..
  12. 2019년 NEW 목표는?
      1. Android GDE, 발표, 글 많이쓰기, 책쓰기, 멘토멘티, 영어
  13. ⇒ 이렇게 하지 마세요, 셀프 고통으로 성장하는 타입(불나방)
  14.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자신만의 길이 필요하다. 성장을 위해 목표를 향해

# 질문덕후 생존기

* 1. 18~46세의 미국인은 보통 11개의 직업을 거쳤다
  2. 모르는 것을 물어보라
  3.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모른다는 것?
     1. 코드
        1. 프로그래밍 언어가 익숙치 않다.
        2. 내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다.
        3. => 코드를 자주 보면 된다.
     2. 문제 해결법
        1. 검색 키워드를 모른다.
        2. => 시간이 해결해줄 것, 구글에 다있다.
  4. 질문하는 방법
     1. Stack overflow
        1. 질문의 맥락이 있어야 한다.
        2. 답변자가
           1. 접근방법을 알려준다
           2. 코드를 알려준다
  5. 질문할 때 어려운 점
     1. 완벽주의
        1. 완벽한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꺼려한다.
        2. 요즘은 모두 협업을 한다
        3.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했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
     2. 소심
     3. 자주 물어보자!
  6. 공유를 할수록 성과가 좋아진다
  7. 첫 아이디어는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가볍게 공유함

# 늦깎이 개발자, 실전 프로젝트로 성장하다.

* 1. 뱅크샐러드 안드로이드 개발자
  2. GDE Android Korea
  3. 전 리멤버 안드로이드 개발자
  4. 전과를 하다
     1. 2008 한동대 기계 공학인증
        1. 취업이 잘된대
        2. 공학인증 : 삼성이 가산점도 준대
        3. 코딩은 못했다
        4. 그런데 C언어가 너무 재밌다.
     2. 컴공과
        1. 좋아하는거 선택해야 잘된다.
  5. 안드로이드를 만나다
     1. 보안 동아리 선배들이 학교 공식어플 개발
     2. 전교생이 그걸 사용
     3. 근데 후계자가 필요함, 유지보수
     4. Java class도 몰랐는데 빡세게 공부함
     5. 선배 : 이거해!
        1. 방향성을 제시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음
     6. Developer Reference를 보고 많이 공부함
     7. 서버부터 프론트까지의 경험을 얻음
  6. 공모전에 실패하다
     1. 팀내 커플 결별 (1명잠수)
     2. 멘탈 잡고 결과는 만들어냈음
     3. 팀 협업, 멘탈 개발이 아닌 경험을 많이 했음
     4. 이 때 공부한 스프링 지식은 아직도 유용했다.
  7. 국가대표가 되다
     1. 세계대회 도전(국가 대표를 뽑음)
     2. 멘토가 이렇게 할거면 집에가서 발씻고 자는게 더 도움될것이다. 듣고 대학교에서 살면서 배움
     3. 서비스 논리를 배움
     4. 성장을 확인
  8. 마무리
     1. **지금 당장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결과를 내세요!**
     2. 실패해도 되고 성취가 없어 보여도 뭔가를 배운다.

# 아직도 나는 개발자가 맞는가?

* 1. 부제 : 결국엔 개발자
  2. 레이니스트 재직 뱅크샐러드 백엔드 개발자
  3. 수능 공부 지겨워 다른 재밌는 것은 없을까?
     1. 누가 서울버스 뭐시기 어플 만들어서 돈 많이벌었다~ 나도하고싶다~
  4. 개발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지?
     1. 지식인 -> C언어부터 공부하라
     2. C언어 책은 라면받이가 됐다.
        1. 공부라고 느껴서
        2. 배워서 어떻게 써먹는지 몰라서
        3. 흥미를 못느껴서
        4. 남들과 같은 커리큘럼인게 싫어서
     3. 전과 시도
        1. 실패
     4. 언어를 찾음
        1. 관심이 간다.
        2. 대세가 될것 같다
        3. 교수님이 추천한 거
        4. 파이썬, 하스켈
        5. 장고, 라즈베리 파이, 데이터분석, 함수형 프로그래밍
     5. 관심이 가는 범위를 늘려봄
        1. 흥미가 생기는 것을 찾을 때 까지 노력
     6. 이제 시작하려는데 포기한다..(의지박약)
        1. 프로젝트 참여
        2. 인턴 할 수 있는 회사 찾아보기
           1. RocketPunch
           2. 근데 다 떨어짐
        3. 근로뭐시기? 성공
        4. 그다음 인턴 40개 다떨어짐
           1. 남들과 같이 작성 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2. 알고리즘 테스트 준비보다 프로젝트 위주의 경험이 많았다

근데 그것을 살리지 못했다

* + - 1. 코드와 기획서를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듬 -> 인턴지원 성공
    1.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1. 이것들을 다 학습하고 개발을 해야 하는가?
          1. NO!
       2. 작은 피쳐 단위 구현 -> 적용된 기술을 Digging -> 코드 리뷰 ->작은 피쳐 단위 구현-> (사이클) -> 배포
       3. Stack overflow ~~~
       4. 빠른 피드백과 빠른 리뷰가 중요
    2. 목표를 잡았다
       1. 협업이 잘되는 개발자
       2. 고객 관점/ 가치 향상시키기
    3. 책을 읽고 자료를 읽고 협업을 어떻게 잘 할까 동료들로 부터 피드백~~

# 만드는게 좋아서 시작한 개발

* 1. 안드로이드 개발 4년차
  2.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개발을 알게 됨
     1. 만드는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돈이 된다.
     2. 바로 진로 결정
     3. 1-2년차 -> 재밌다
     4. 3,4년차 -> 뭔가 힘들다
        1. 만드는게 다가 아니더라..
        2.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공부해야 하는..
        3.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건가..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느낌 그대로
        1. 만드는게 좋다

# 개발자로서 시야 넓히기 (aka. 슬럼프 극복기)

* 1. 네이버 프론트 엔지니어
  2. google developers experts ~~~
  3. AMP 오픈소스 멤버
  4. UI/UX Developer?
     1. 많이 죽어있었다..
  5. 고졸, 연봉도 낮고..
  6. 슬럼프
  7. [내가 모르는 기술들](https://velog.io/@chris/%EB%B2%88%EC%97%AD-2018%EB%85%84-%EB%82%B4%EA%B0%80-%EB%AA%A8%EB%A5%B4%EB%8A%94-%EA%B8%B0%EC%88%A0%EB%93%A4-rnjr3h8mgj)
  8.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
  9. 커뮤니티 가입
     1. GDG 가입
     2. 다른 개발자들과 많이 만났음
     3.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고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많다.
     4. GDE에 가입
  10. 영어를 못해요..
      1. 근데 면접을 봐야한다.
      2. 하루 4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다.
         1. 4일동안 계속 영어공부 해서 합격
      3.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
      4. 정보가 영어가 54퍼센트 한국어가 0.9퍼센트
  11. 기회는 늘 온다. 그것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너무 힘들다.
  12. 슬럼프 극복
      1.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해라
      2. 뭐든 해봐라
      3. 영어를 공부해라

# 개발자 커리어를 위한 소프트 스킬

* 1. 넥슨
  2. 코딩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신경써야 한다
     1. 건강, 대화~~
  3. 메타 인지
     1. 나에 대해 잘 아는 것
  4. 자투리 시간 활용
     1. 출퇴근 길 자기계발
        1. 경우에 따라 서서가거나 앉아서 가거나
        2. 서서갈 때는 유튜브로 강연 영상 듣기
        3. 앉아서 갈 때는 강의 보거나 책 보기
        4. 걸어서 이동중에는 유튜브 걍연 듣기(유튜브 프리미엄)
        5. 쉬는 시간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트랜드 읽기
           1. 기술적인 그룹이 굉장히 많음
           2. 자기혼자 보려고 트위터에 막 올려놓음
     2. **스페셜리스트 vs 제너럴리스트**
        1. 발표자는 제너럴 리스트를 선호 (나도그렇다..)
           1. 여러가지 하는것을 좋아함
           2. 하나만 오래 보면 금방 질림
        2. 현재 진행중인 공부
           1. 백엔드 개발을 위해 Go 언어를 공부
           2. 프론트 view.js 공부
           3. 그룹 스터디
     3. **지속적인 작은 성공**
        1. 작은 목표
        2. 지속적인 자극을 줘야 한다.
           1. 발표하는것도 작은 성공이다
           2. 업무도 이런식으로 함
     4. 개발 노트
        1. 적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무언가를 적는다
           1. markdown mindmap
           2. github : 정제되지 않은 자료들을 막 올려놓음
           3. blog : github 글을 정제해서 올려놓음
           4. notion : ~
        2. 이것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됨
        3. 반복되는 문제를 다시 빠르게 해결함
        4. 글을 쓰다보면 머릿속에 정리
        5. Github 활성화됨
     5.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 커뮤티니!
        1.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하고싶은 것
        2. 구글 스터디 잼
        3. 자바 카페
           1. 스터디 많이함
           2. 정기 세미나, 강의 발표
           3. 책 번역 + 출간
        4. AWSKRUG
           1. AWS Summit 발표도 함
        5. DDD
           1. Design Developer D~~
           2. 팀 프로젝트
           3. 해커톤
           4. google cloud summit
        6.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옴! 이런 활동이 중요하다
     6. 건강
        1. 목, 허리 건강
        2. 스트레칭
        3. 운동
     7. 휴식
        1. 다른 것은 신경쓰지 말고 놀아라
        2. 게임, 여행, 카페
     8. 컨퍼런스
     9. Linkedin
        1. 채용의 기회
        2. 경력 나열, 발표한 것 정리, 책쓴것도 정리
        3. 이것을 통해 넥슨에 입사하게 됨
        4. AWS는 최종면접에서 떨어짐
        5. Microsoft는 면접있었는데 넥슨붙어서 안감
     10. 나에게 맞는 나만의 방법을 찾자
         1. 너 왤케 이것저것 다 파냐! -> 신경쓰지 않는다

공통점 : 커뮤니티에 가입해라, 블로그를 해라, 프로젝트를 시작해라

Session 2 : Networking